

韓國美術史 연구서 많이 나온다

집필중인 한국미술사만 5권이나 돼

최근들어 미술사학계의 활동이 부쩍 활발해진 가운데, 올 하반기 한국 미술사 연구서적들이 속속 간행될 예정으로 있어 관심있는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 중 제작이 거의 완료됐거나 곧 출간될 대표적인 책은 고고학과 한국 미술사학의 원로 金元龍교수(65·서울대 대학원장)의 「한국 미술사 연구」, 그리고 안輝濬교수(47·서울대)가 준비하고 있는 「安堅과 夢遊桃源圖」를 비롯한 4권의 한국회화사.

金元龍교수는 이번 8월말 25년간 몸담아 왔던 서울대학교를 정년퇴임하면서, 그간 발표했던 고고학과 한국미술사 연구논문들을 총정리하는 의미로 「한국 미술사 연구」와 「한국 고고학연구」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낼 두권의 논문집은 나 자신의 학문적 자서전이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나의 학문세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해왔는가 하는 것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지요. 사실 그동안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수정해야 할 부분도 많고 아주 쓸모없게 되어버린 논문들도 있습니다. 후자의 것들은 이 논문집에서 제외시켰으며, 다만 수정할 필요가 있는 논문들은 본문을 다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기·추가사항을 붙였습니다」

고고학 미술사 동시에 내는 金元龍 박사

金元龍교수는 고고학과 미술사 연구가 체계

적으로 정립되어있지 않던 1947년, 국립박물관에 연구원으로 들어가 무녕왕릉 등 주요 발굴작업을 주도했다. 고고학이 제1 전공이며 미술사는 제2 전공이라고 말하는 金교수는, 학자란 한 분야를 깊게 파고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50년대와 60년에 워낙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혼자서 지나치게 많은 분야를 다룬 듯하다고 덧붙인다.

이번 두 논문집에 실린 논문들은 52년에서부터 86년까지 발표된 약 150편의 논문들 중에서 추려낸 것으로, 「한국 고고학 연구」에는 총 44편이, 「한국 미술사 연구」에는 40편이 실려 있다.

한편 金교수의 퇴임을 앞두고 8월 하순 경, 「정년기념 논문집」도 발간될 예정으로 있다. 90명의 동료·후배 학자들의 논문을 모은 책으로, 고고학과 미술사학계의 대다수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어 학계의 현 동향을 파악하는데도 유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1권 고고학편에는 「公州郡 灘川面 先史墳墓群」(尹武炳), 「月城 竹東里出土 靑銅器一括遺物」(韓炳三), 「한국선사시대의 무덤」(孫秉憲), 「驪州 欣岩里 先史聚落址의 성격」(崔夢龍), 「靈岩出土 靑銅器 鎔范一括에 대하여」(林炳泰) 외에 영어논문 5편 일어논문 3편 등 총 46편의 논문들이 실려 있다.

제2권에는 「尉遲乙僧畫法의 根源과 擴散」(權寧弼), 「龍紋과 中國美術」(許英桓), 「韓國

논문집의 색인작업

중인 金元龍교수.

8월로 25년간

몸담아왔던

서울대를

정년퇴임한 후,

알기쉬운

미술사 책을 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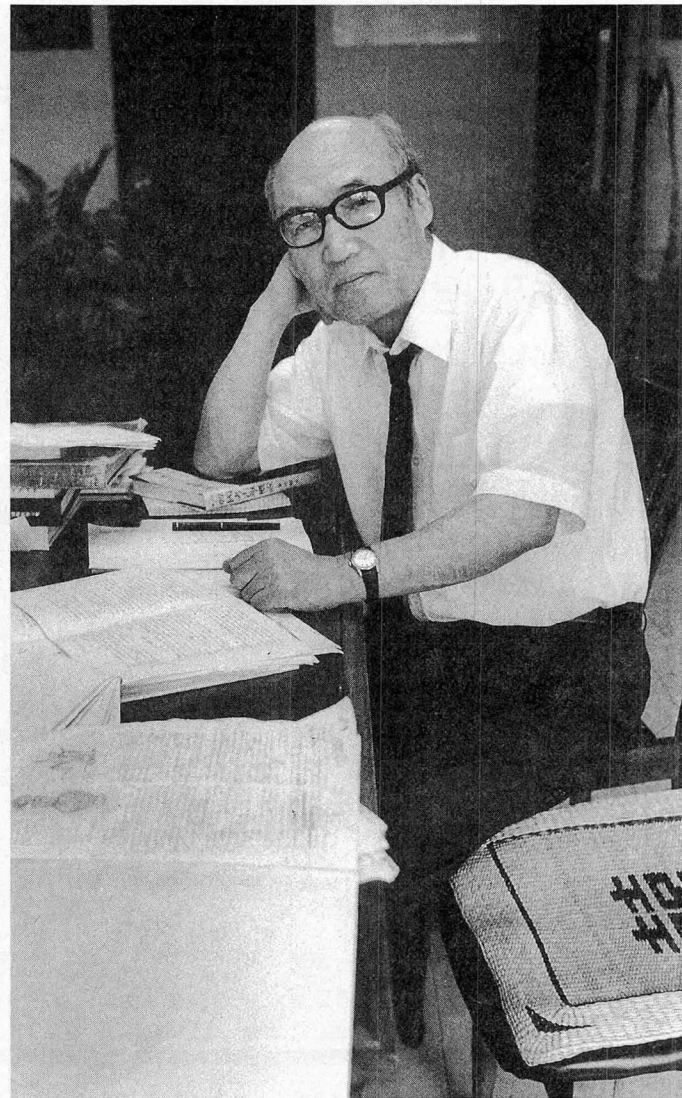
한편 그 동안

취미삼아 그려왔던

文人畫에도 좀더

열중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南宗山水畫風의 變遷」(安輝濬) 등 미술사 논문들을 비롯하여 「浮石寺와 太白山」(李基白) 등의 역사학 논문, 「조선 전통문화의 연극의례성」(姜信杓) 등의 인류·민속학 관계 논문 총 44편이 실려 있다.

서울대학교 고고학과(1961년 창설) 제1회 졸업생으로 金元龍교수의 제자이기도 한 안輝濬교수 역시 「安堅과 夢遊桃源圖」와 「한국 회화사 연구」 「한국 회화미의 전통」 「한국의 미술문화」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다.

「한국미술사 중에서도 회화는 종래 가장 편견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日帝시대에 한국 미술을 연구하던 일본인 학자들은 우리의 도자기·불상에 대해서는 찬사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회화가 지닌 독창성은 과소평가했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회화사 연구는 작가와 작품 주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화풍·양식분석을 토대로 하여 그 성격을 역사적으로 규명해 보고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라고 안교수는 말한다.

二友出版社

서울특별시 중구 忠武路5街 19-8 ☎ 273-9241 (대)~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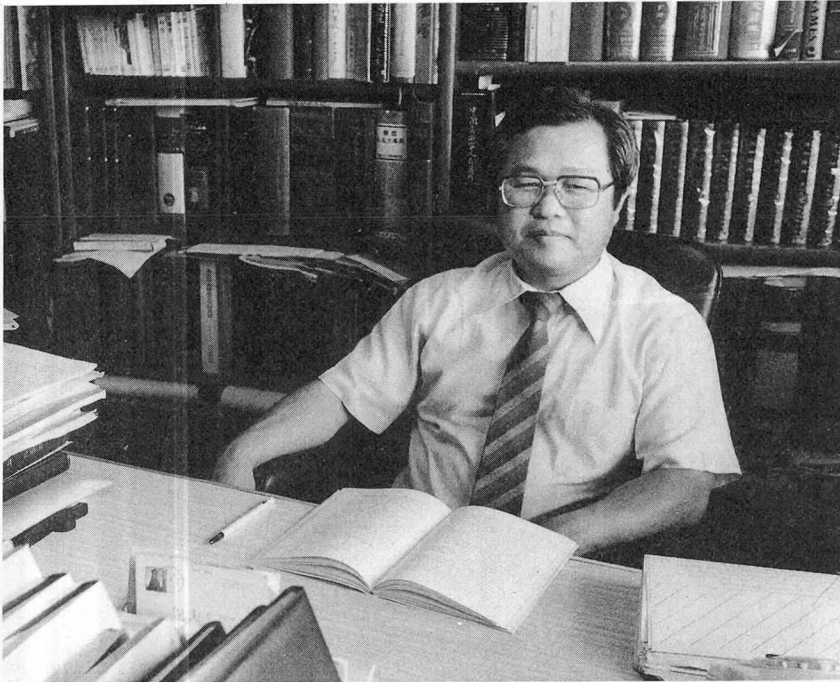
國語國文學·文藝批評叢書

文學의 理論과 方法 朴喆熙·金時泰
抒情과 認識 朴喆熙
文學과 時間 李昇薰
韓國小說의 位相 李海植
문학이라는 시비거리 趙東一
假面의 해석학 金堉五
現代詩와 實踐批評 吳世榮
文學와 삶의 성찰 金時泰
소설의 시대를 위하여 權寧珉
文學와 精神史의 자취 曹南鉉
詩와 眞實 金재홍
韓國文學와 恨 千二斗
우리 근대 소설논집 金鍾斗
文學批評의 論理와 實際 尹在根
강물과 섞여 꿈꿀 수 있다면 安海경
國語學 研究 南廣祐

說話文學概說 張德順
現代小說論(近刊) 金時泰
杜詩諺解의 國語學的 研究 金在昊
韓國學散藁 崔範勳
韓國語音韻論 黃希榮
中世韓國語文法論 崔範勳
濟州島方言研究 玄平孝
高麗歌謠의 語釋研究 朴炳采
국어표현문법 전재호·박태권
韓國文學背景研究 上·下 朴景義
韓國民謠研究 任東權
韓國歌謠의 研究·續 金東旭
鄉歌文學研究 金鍾雨
國文學通論·國文學史 朴景義
時調의 史的 研究 李泰極
李朝時代小說論 李起東

盧溪詩歌研究 李相寶
韓國漢文學 文璇奎
韓國諷刺文學研究 李廷卓
韓國文學上의 杜詩研究 李丙疇
園房歌辭研究 權寧徹
新羅歌謠와 記述物의 研究 林基中
詩의 原理 李漢用
韓國小說論의 反省 韓龍煥
杜詩研究論叢 李丙疇
韓國古小說研究 丁奎福·蘇在英·金光淳
羅麗漢詩選 金甲起
鄉歌麗謠研究 黃滄江 外
祭歌萬植小說研究 朴善楨
現代小說의 理解 金宇鍾
現代作家論 尹柄魯
現代韓國詩論 文德守

植地地時代의 批評文學 金時泰
說話文學概說 張德順
古小說通論 蘇在英
文藝批評論(近刊) 金時泰
韓國現代詩史 朴喆熙
現代詩의 解釋과 鑑賞 文德守
漢文學史(近刊) 李丙疇 外
諸子選讀 梁淳瑛·尹光鳳
文藝思潮 朴喆熙 外
松江鄭澈研究 金甲起
韓國演戲詩研究 尹光鳳
玄鎮健小說研究(近刊) 玄吉彦
韓國假傳研究 安秉烈
小說原論 조남현
詩論 金준오
佔畢齋 金宗直研究(近刊) 朴善楨



『이제 최근의 韓國繪畫史
연구는 작가와 작품
주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畫風 양식분석을 토대로 하여
그 성격을 역사적으로 규명하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는 安輝濤교수.

최초로 발간되는 『夢遊桃源圖』 연구서

8월 중순 경에 발간될 예정으로 있는 『安堅과 夢遊桃源圖』는 조선조 최대의 걸작이면서도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못하고 있던 夢遊桃源圖를 회화론에 입각해서 분석한 연구서. 성삼문, 박팽년, 신숙주 등이 쓴 관련 詩歌들은 서울대 中文科 李炳漢교수가 번역했다.

『한국 회화사 연구』와 『한국 회화의 전통』은 이제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정리하여 수록한 논문집. 『한국 회화사 연구』는 古代 회화에서부터 고려 및 조선시대 회화의 중국·일본과의 交渉, 15세기 회화의 주류: 安堅 畫風, 16·17세기의 화풍, 18·19세기의 화풍을 다루고 있어 한국회화의 변화를 총괄할 수 있게 했다. 『한국 회화의 전통』에서는 한국 회화의 美의식을 개괄하는 한편 한국 山水畫의 발달, 한국의 瀟湘八景圖, 南宗 산수화풍의 변천, 풍속화의 발달, 文人契會와 契會圖 등을 다루고 있다.

한편 『한국의 미술문화』는 논문뿐만 아니라 전공관계 에세이를 함께 엮고 있어 한국미술사

를 전공하려는 사람들의 학문하는 방법·태도에 보탬을 주려는 의도로 집필했다. 한국미술 문화의 성격과 변천, 한국의 전통회화, 일본 회화와의 관계, 미술과 역사, 박물관과 교육, 문화재와 해외전시, 미술교육과 평론 등이 주요내용이라고 安교수는 말한다.

한국미술사의 근대적 연구는 高裕燮이 최초

—然스님에 의한 『삼국유사』의 불교미술사 학적인 접근 등 고대적인 연구방법 이래, 한국 미술사학이 근대학문의 하나로 본격 연구된지는 사실 얼마되지 않는다. 일제 어용학자들과 高裕燮의 학문활동이 그 효시. 한국미술의 본질이 왜곡되어 해석되고있던 당시의 풍토에서 高裕燮은 사회사상사적인 방법과 정신사적인 방법 등을 수용하여 한국미술사학의 수준을 끌어올린 탁월한 학자였다. 해방 이후 6·25 사변을 겪으면서 극도의 혼란때문에 미술사학의 발전은 전무한 형편이었으나 考古美術同人會가 1960년대 설립되었으며, 1969년에는 金元龍교수가 당시까지의 연구성과와 새로운 자료를

모두 정리하여 개설한 力著 『韓國美術史』를 펴냈다. 70년대에 들어서면, 동국대 불교고미술학과(1970년)와 홍익대 대학원의 미학·미술사학과(1973년)가 설립되면서 대학교육을 통한 학술 활동이 정립되기 시작했다.

美術史 전공자 늘고 연구단체도 생겨나

현재 독립된 미술사학과가 개설되어있는 대학은 없고, 홍익대를 비롯한 5개의 대학원 미술사학과, 서울대를 비롯한 3개 대학의 고고미술사학과 그리고 동국대와 홍익대에 인접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따라서 십년전과 비교해 볼 때에 연구자의 양적인 증가가 두드러진다. 최근에는 미술사학연구회와 미술사교육연구회가 잇달아 결성되어, 이론정립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미술사 연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文明大교수(47·동국대)는 『한국미술을 단순히 문화재적 관점에서 연구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요즘은 학술적으로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그러나 자료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광범위한 관점에서 깊이있게 천착하는 논문들이 각 분야에서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양적인 팽창뿐만 아니라 질적인 상승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

아직도 일반에게는 미술사학이라고 하면 귀

족적이며 고답적인 학문으로 인식되는 일이 적지않다. 그러나 역사학이 인간사를 규명하는 것이듯, 미술사 역시 역사이다. 어떤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일이 필수적이며, 그 시대의 무엇이 그런 미술, 표현양식을 나오게끔 했는가 하는 규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한 작가의 작품이 지닌 美를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민족의 문화전통 속에 면면히 흐르고있는 美를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70년대 이후 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전문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대학에서 미술사학을 전공하는 학생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물론, 일반인들 사이에도 한국미술에 관심이 늘고 있다. 따라서 전공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와 감상자들을 위한 미술사 서적들도 계속 간행될 추세를 보인다. 최근에는 元老 李東洲박사(70)가 『韓國繪畫史論』을 펴냈으며, 金元龍교수 역시 『한국미술사연구』 외에도 앞으로 독자들에게 한국미술의 아름다움을 알기쉽게 소개하기 위한 책을 낼 계획이 있다고 밝힌다. 따라서 87년은 한국미술에 대한 뛰어난 감식안과 수십년의 경험을 조화시킨 무게있는 한국미술사가 가장 많이 출간된 해로 기록될 것 같다.

—오애리 기자

『20세기 미술사총서』

《1차분》

이 새로운 「미술운동」 시리즈는 개별적 양식 및 예술가 중심으로 씌어진 평면적 미술사를 지양하면서 우리시대 미술운동의 역동적 자취에 대한 비판적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방대한 텍스트로부터 가려낸 각 분야 전문 비평가들의 원문, 국내의 신예 미학·미술사학자들의 진지한 번역, 그리고 정선된 자료도판은, 오늘날 미술이라는 「환경」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비평적 시각을 열어줄 것이다.

큐비즘 존 콜링 / 황지우

팝아트 에드워드 루시 / 스미드 / 전경희

표현주의 노버트 린튼 / 마순자

추상표현주의 찰스 해리슨 / 이영철

사회주의 리얼리즘 존 버거 / 김재현

키네틱 아트 조지 리키 / 윤난지

신중립주의·제3제국의 회화 Die Neue Sachlichkeit · La peinture durant Le III Reich

권터 페르켄 · 페르톨트 힌츠 / 안규철

신구상회화 장 루이 프라델 / 박신의

누보레알리즘 다니엘 아바디 / 김정란

미래파 지오반니 리스타 / 정진국

• 근간
값 2,000 ~ 3,000원

정리화인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5의 5 출판단지내
715-1588 717-0613 719-4167